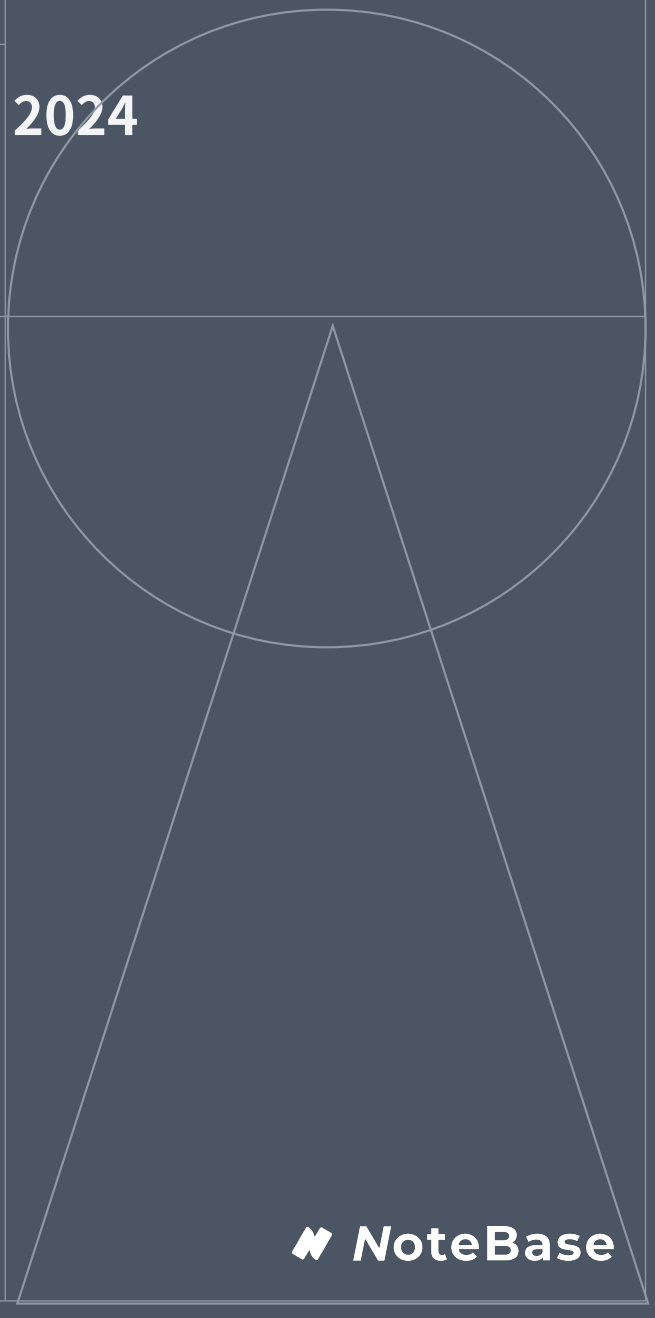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4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4

문 1.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아이가 말을 참 잘 <u>듣는다</u>.

① 이 약은 나에게 잘 <u>듣는다</u>.
②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u>들어라</u>.
③ 이번 학기에는 여섯 과목을 <u>들을</u> 계획이다.
④ 브레이크가 말을 <u>듣지</u>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의 '듣다'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하다**라는 뜻이다.

공통 해설

제시문의 '듣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요구를 받아들여 그에 따라 행동하다**라는 뜻이다.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른다는 의미이다. 같은 의미인지 판단하려면 문장 속 '듣다'를 '말에 따라 행동하다'로 바꾸어도 뜻이 유지되는지 살펴본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지시를 잘 따르라는 의미이므로 이 기준에 들어맞는다.

약이 잘 듣는다는 것은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과목을 듣는다는 것은 그 과목의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제시문과 똑같이 '말을 듣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작동 여부를 나타내므로 의미가 다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① 가슴을 옭죄는 아픔이 밀려왔다.

② 나는 해마다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쇤다.

③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친구를 만났다.

④ 바지의 해어진 부분에 짜집기를 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쇠다'는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등을 맞아 지내다**라는 뜻이다. 설을 지낸다는 뜻으로 쓴 '쇤다'는 '쇠다'의 올바른 활용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옭죄는'은 **'옥죄는'**으로 고쳐야 한다. '옥죄다'는 안쪽으로 오그라지게 하여 바싹 죈다는 뜻이다. 가슴을 바싹 조이는 듯한 아픔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가슴을 옥죄는 아픔'으로 쓴다.

② O: '쇠다'는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등을 맞아 지낸다는 뜻이므로 **'설을 쇠다'**라고 쓸 수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쇠-'에 현재의 서술을 나타내는 어미 '-ㄴ다'가 붙으면 '쇤다'가 된다.

③ X: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른다는 뜻의 동사는 **'들르다'**이다. '들르-'에 '-었-'이 붙을 때 어간의 '으'가 탈락하여 '들렀-'이 되므로, '포장마차에 들렀다가'로 고쳐야 한다.

④ X: '짜집기'는 **'짜깁기'**로 고쳐야 한다. '짜깁기'는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올을 살려 본래대로 짜서 깁는 일이다. 바지의 해어진 부분을 수선한 문맥이므로 '짜깁기를 했다'로 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란 ‘저작 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 낸 사람, 저작물 작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저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가 장기간 노력해서 창작한 저작물을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로서는 창작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①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자의 정의

②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

③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지녀야 할 태도

④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글에서는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이 모두 저작물에 포함된다고만 했을 뿐, **두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이나 차이는 설명하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 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발견·발굴, 의뢰, 조언, 자료 제공 등을 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여, **직접 창작했는지**가 저작자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보여 준다.

② X: 첫째 문단은 1차적 저작물뿐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에 포함되며, 그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는 제시하지 않는다.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유형이 모두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이지, 두 유형의 구별 기준이 아니다.

③ O: 둘째 문단의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라는 비유는 창작자가 선배 저작자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어 그 혜택을 누리려면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가 지녀야 할 존중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O: 셋째 문단은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므로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대가 없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어 저작자가 창작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지속적인 창작을 뒷받침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추위가 한창 매섭던 1월의 어느 아침 한 길거리 음악가가 워싱턴시의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바흐의 「샤콘」을 비롯하여 여섯 곡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출근길에 연주가를 지나쳐 간 대략 천여 명의 시민이 대부분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단지 몇 사람만 걷는 속도를 늦추었을 뿐이다. 7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 중년 여인이 지나가면서 모자에 1달러를 던져 주었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연주가의 모자에는 32달러 17센트가 쌓여 있었지만,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음악가인 조슈아 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으며, 평상시 그의 콘서트 입장권은 백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

① 지하철역은 연주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② 연주하는 동안 연주가를 지나쳐 간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③ 출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④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백 달러의 입장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의 첫 문장은 바쁜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삶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출근길 시민들이 유명 연주가의 음악에도 멈춰 서지 않은 것은 **음악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하철역이 연주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글은 장소의 적절성보다 **바쁜 생활 방식 때문에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X: 연주가를 지나쳐 간 시민은 **대략 천여 명**이므로 사람이 적었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사람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대부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첫 문장의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뒤에 나오는 일화를 해석하는 근거이다. 시민들은 출근길에 있었고, 일부도 걷는 속도만 늦추었을 뿐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지는 않았다. 이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④ X: 백 달러가 넘는 가격은 **평상시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이다.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듣기 위한 요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 가격은 유명한 연주가의 음악조차 바쁜 출근길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상황을 부각한다.

NoteBase

문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ᄎᆞ노ᄆᆡ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ᄆᆡ라
무심(無心)ᄒᆞᆫ 돌빗만 싯고 ㉠ 뷘 ᄇᆡ 저어 오노라.

(나) 이런돌 엇더ᄒᆞ며 뎌런돌 엇더ᄒᆞ료
㉡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ᄒᆞ료
ᄒᆞᄆᆞᆯ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텨 므슴ᄒᆞ료.

(다) 십 년을 경영ᄒᆞ여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ᄒᆞᆫ 간 돌 ᄒᆞᆫ 간에 청풍 ᄒᆞᆫ 간 맛져 두고
㉢ 강산은 들일 ᄃᆡ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라) 말 업슨 청산이오 태 업슨 유수로다
갑 업슨 청풍이오 님ᄌᆞ 업슨 명월이로다
이 즁에 병 업슨 ㉣ 이 몸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① ㉠에서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에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④ ㉣에서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이어지는 '천석고황'은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을 고치기 어려운 병에 빗댄 표현이므로, 화자는 속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빈 배'는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않은 채 돌아오는 배이다. 화자는 물고기를 얻지 못한 아쉬움 대신 '무심한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물질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욕심 없는 태도**를 드러낸다.

② X: ㉡의 '초야우생'은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이러타 엇더하료'는 이렇게 살아도 어떠하냐는 뜻이며, '천석고황'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고치기 어려운 병과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화자는 속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긍정**하고 있다.

③ O: 화자는 초가집 세 칸을 지어 자신과 달, 맑은 바람에 각각 한 칸씩 내어 준다고 표현한다. ㉢의 '강산'은 집 안에 들일 수 없으니 둘러 두고 보겠다고 한다. 달과 바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여기고 강산을 가까이 두는 모습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태도**를 볼 수 있다.

④ O: 화자는 청산·유수·청풍·명월을 벗하며, ㉣의 '이 몸'이 병 없이 '분별 업시' 늙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분별'은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뜻한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현실의 근심을 벗어나 평온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을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생님께서 수시(隨時)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 아무 때나 늘

② 그는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 지나친 말이

③ 문화 시설 대부분이 서울에 편재(偏在)해 있다. - 치우쳐

④ 누구나 착한 심성을 발현(發現)하는 것은 아니다. - 헤아려 보는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발현(發現)하는'은 속에 있던 성질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헤아려 보는'이 아니라 '드러내는'으로 풀어 써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시(隨時)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다. 선생님이 정해진 때에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때를 가리지 않고 교실에 들어오셨다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풀이가 적절하다.

② O: '과언(過言)'은 **지나치게 말을 함 또는 그 말**을 뜻한다.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그렇게 평가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③ O: '편재(偏在)'는 **한곳에 치우쳐 있음**을 뜻한다. 문화 시설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치우쳐'로 풀어 쓸 수 있다.

④ X: '발현(發現)'은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이 문장에서는 '착한 심성을 발현하는'을 **'착한 심성을 겉으로 드러내는'**으로 풀어 써야 한다. '헤아려 보는'은 무엇을 생각하여 따져 보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발현하는'의 뜻과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국인들은 보통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수줍음을 구별하지만 자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감정 어휘들은 문화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르다. 중세 시대에는 우울감이 '검은 담즙(melanchole)'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에 우울증을 '멜랑콜리(melancholy)'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감정 어휘는 이메일 보내기, 문자 보내기, 트위터하기에 스며든 관습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제는 내 감정을 말로 기술하기보다 이모티콘이나 글자의 일부를 따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주도적인 상징의 창조와 확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사의 발전일 것이다.

①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②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④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은 **기술의 발달이 감정 표현 방식을 바꾼다**고 설명한다. 감정 어휘가 풍부한 집단일수록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하다는 집단 간 비교는 제시하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미국인들은 당혹감·수치심·죄책감·수줍음을 구별하지만 자바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같은 감정들을 구분하여 이름 붙이는 방식이 다르므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쓰이는 **개념적 자원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O: 글은 감정 어휘가 문화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르다고 설명한다. 또 오늘날에는 감정을 말로 기술하는 대신 이모티콘이나 글자의 일부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도 시대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③ X: 글에 제시된 관계는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감정 표현 수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감정 어휘가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기술 발전에 대한 태도는 비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 어휘의 풍부함이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한 태도로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없으며, 기술의 발달로 감정을 표현하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④ O: 인터넷이 발명된 뒤 이메일·문자·트위터의 관습 속에서 감정 어휘가 형성되고, 이모티콘 등을 통한 표현도 활용된다고 했다. 이러한 상징의 창조와 확산이 감정 묘사의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는 설명에서,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던 감정 표현 방식이 생겨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흰 달빛
자하문

달 안개
물소리

대웅전
큰 보살

바람 소리
솔 소리

범영루
뜬 그림자

흐는히
젖는데

흰 달빛
자하문

바람 소리
물소리

— 박목월, 「불국사」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②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4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④의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은 시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달빛 아래 불국사의 건물과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고요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이루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하문'에서 '대웅전'과 '큰 보살'을 거쳐 '범영루'로 시선이 옮겨 간다. 불국사 안의 여러 대상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차례로 제시하여 달밤의 풍경을 그려 낸다.

② O: 첫 연의 '흰 달빛 / 자하문'이 시의 끝부분에서 다시 나타나고, 앞부분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도 마지막 연에서 되풀이된다. 이처럼 **처음과 끝에 유사한 표현을 배치하는 수미상관**을 통해 구성이 서로 호응하며 안정감을 준다.

③ O: '흰 달빛', '달 안개', '뜬 그림자'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이미지이고, '물소리', '바람 소리', '솔 소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시각적·청각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불국사의 은은하고 고요한 밤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X: 여러 대상을 차례로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달빛과 안개, 사찰의 건물과 그림자, 바람과 물의 소리가 하나의 풍경 속에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대립과 갈등보다 **대상들이 이루는 조화와 평온함**을 드러낸다고 이해해야 한다.

NoteBase

문 9. ㉠~㉣을 활용하여 음운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① ‘색연필’의 발음에서는 ㉠과 ㉢이 나타난다.
② ‘외곬’의 발음에서는 ㉠과 ㉣이 나타난다.
③ ‘값지다’의 발음에서는 ㉡과 ㉢이 나타난다.
④ ‘깨끗하다’의 발음에서는 ㉢과 ㉣이 나타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색연필'은 '연' 앞에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되고, 이어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색연필'은 [색년필]을 거쳐 [생년필]로 발음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색'과 '여'로 시작하는 '연필'이 결합하면서 없던 ㄴ이 생기는 ㉢ 첨가가 일어난다. 이어 ㄱ이 뒤의 비음 ㄴ에 동화되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 교체도 나타난다. ㄴ은 새로 생긴 소리이고, ㅇ은 **원래 있던 ㄱ이 바뀐 소리**이다.

② X: '외곬'은 [외골]로 발음된다. 겹받침 ㅀ에서 **ㅅ이 탈락**하고 ㄹ만 남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두 자음이 새로운 제삼의 자음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축약이 아니다. ㉠ 교체와 ㉣ 축약이 아니라 ㉡ 탈락이 나타난다.

③ X: '값지다'는 [갑찌다]로 발음된다. 겹받침 ㅄ에서 ㅅ이 탈락하여 ㅂ만 남는 자음군 단순화는 ㉡ 탈락이다. 또한 '지'의 ㅈ이 ㅉ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이다. 새로운 음운이 덧붙는 첨가는 없으므로 ㉡과 ㉢이 아니라 ㉡과 ㉠이 나타난다.

④ X: '깨끗하다'는 [깨끋하다]를 거쳐 [깨끄타다]로 발음된다.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 교체이고, 그 ㄷ과 뒤의 ㅎ이 합쳐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는 ㉣ 축약이다. ㅌ은 새로 덧붙은 소리가 아니라 **ㄷ과 ㅎ이 합쳐진 소리**이므로 ㉢ 첨가와 ㉣ 축약이 아니라 ㉠ 교체와 ㉣ 축약이 나타난다.

NoteBase

문 10.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간단한 식사에서 축제까지, 작은 카페의 대화에서 연회장의 교제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한다.
포도주는 계절에 따른 어떤 날씨에도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어 추운 계절이 되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한여름이 되면 서늘하거나 시원한 그늘을 떠올리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배고프거나 지칠 때, 지루하거나 답답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나 육체적으로 힘든 그 어느 경우에도 프랑스인들은 포도주가 절실하다고 느낀다.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장소와 시간, 상황에 관계없이 음식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등장한다.
포도주가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결부된 탓에 프랑스 국민은 이제 포도주가 있어야 할 곳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는다. 르네 코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사적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속 탁자에는 포도주 대신 다른 술이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이 들끓고 일어났다.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란 ____

① 심신을 치유하는 신성한 물질과 같다.
②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③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료다.
④ 어느 계절에나 쉽게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음료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프랑스인들이 대통령의 사적인 사진에 포도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포도주를 '그들 자신과도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표현은 포도주가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임을 보여 준다.

NoteBase

핵심 풀이

빈칸의 의미: 글은 포도주가 식사와 축제, 대화와 교제 등 프랑스인의 일상 전반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어 대통령의 사적인 사진에서 포도주 대신 다른 술이 놓여 있자 국민이 반발한 사례를 든다. 다른 술로 대신했다는 사실까지 참을 수 없었던 까닭은 포도주를 '그들 자신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포도주에 **프랑스인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가 들어간다.

①과의 구분: 지치거나 불안할 때 포도주를 절실하게 느낀다는 내용은 있지만, 포도주를 **신성한 물질로 여긴다는 근거는 없다**. 심신의 상태에 따른 필요성만으로 글의 결론을 설명할 수도 없다.

③과의 구분: 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통령의 사적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다.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포도주가 다른 음료보다 가장 주목받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글의 초점은 특정 국가 행사가 아니라 일상 전반에 자리 잡은 포도주의 의미이다.

④와의 구분: 계절에 따라 분위기를 고양한다는 것은 글에 제시된 포도주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는 **글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며, 포도주가 없을 때 국민이 충격을 받고 반발한 이유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마지막의 '결국' 뒤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는 상징적 의미가 와야 한다.

NoteBase

문 11. ㉠~㉣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나는 유명 축구 선수의 성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고난을 이겨낸 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선수의 가족들은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거나 원정 경기를 할 때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했고, 훈련 트레이너는 선수의 체력 증진은 물론 컨디션 조절 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 궁금해졌다.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선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나는 그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①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고난'으로 고친다.

②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꾼다.

③ ㉢은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④ ㉣은 부사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일이라면'으로 수정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록'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다른 내용을 이어 주므로 **'일일지라도'**처럼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한다. '일이라면'은 조건을 나타내어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고난'은 괴롭고 어려운 일을 뜻하므로, '괴로운 고난'에서는 **괴롭다는 의미가 중복**된다. '괴로운'을 빼고 '고난'으로 고치면 의미를 유지하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② O: 앞 문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했을 것이라고 하고, 뒤 문장에서는 글쓴이가 선수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두 문장은 감동의 대상이 **서로 대조**되므로, 원인과 결과를 잇는 '그러므로'보다 '그러나'로 연결하는 것이 알맞다.

③ O: 글은 선수의 성공을 뒷받침한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역할을 소개하고, 그들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은 **주변 사람들의 공헌이라는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하면 글의 통일성이 높아진다.

④ X: '비록'은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예상되는 결과와 다른 내용을 이어 주는 부사이다. 여기서는 선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이 당연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므로, '일로'를 **양보를 나타내는 '일일지라도'**로 고쳐야 한다. '일이라면'은 어떤 일을 가정하는 조건 표현이어서 '비록'과 호응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입니다. 저는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실 겁니다.

흡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에게 흡연은 적은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1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금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이유로 흡연할 경우,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금연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글로리안 소런슨 교수 팀은 제조업 사업체 15곳의 노동자 9,01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산업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장의 금연율은 어떻게 다를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6개월 뒤에 흡연 상태를 측정했을 때 산업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장의 금연율이, 금연 프로그램만 진행한 사업장 노동자들의 금연율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②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주의를 끌고 있다.

④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강연자는 연구 결과와 수치를 말로 설명할 뿐, **도표나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수치를 언급하는 것과 시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역학'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물은 뒤 '네, 별로 없네요.'라고 반응한다. 이어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라고 말한다. 이는 **청중의 응답과 표정을 살피면서** 강연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② O: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글로리안 소런슨 교수 팀이 제조업 사업체 15곳의 노동자 9,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한다. 산업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장의 금연율이 금연 프로그램만 진행한 사업장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결과를 들어,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신뢰성을 높인다**.

③ X: 강연에는 도표·그래프·사진 등을 보여 준다는 내용이 없다. 노동자 수와 금연율 등의 **수치를 말로 제시한 것**이지, 시각 자료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10년 뒤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금연하라고 말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당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설득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여, 금연 정책에서도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소설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범죄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원시사회에서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죽음은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인간이 소외되고, 소외된 인간은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 육체에 얽매이게 된다. 그에 따라 인간은 죽음에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죽음은 불가피한 삶의 종결이 아니라 파국적 사고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죽음은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강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폭력에 의한 죽음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과 범죄에 몰두하게 된다. 범죄소설에서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나 비극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① 범죄소설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한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② 범죄소설은 부르주아 사회의 인간소외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문학 양식이다.
③ 범죄소설은 원시사회부터 이어져 온 죽음에 대한 보편적 공포로부터 생겨났다.
④ 범죄소설은 죽음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본주의가 출현한 뒤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끝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파국적 사고**로 여기게 되었다. 글은 이렇게 달라진 태도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살인·범죄에 대한 몰두로 이어져 범죄소설의 탄생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범죄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고 밝힌 뒤,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한다. 원시사회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였지만,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육체에 얽매인 인간이 죽음을 파국적 사고로 여기고 폭력적 죽음과 살인·범죄에 몰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출현 이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가 범죄소설의 기반이라는 설명이 글 전체를 포괄한다.

② X: 인간소외와 노동은 글에 등장하지만, 범죄소설이 무엇을 소재로 다루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소외된 인간이 노동과 돈벌이에 필요한 육체에 얽매이면서 죽음에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인간소외와 노동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배경**이며, 중심 내용은 이러한 변화가 범죄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③ X: 원시사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어져 범죄소설이 생겼다는 내용은 글의 설명과 어긋난다. 글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였고, 자본주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한 강박과 공포가 형성되었다. 범죄소설의 탄생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공포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생긴 태도 변화**와 연결된다.

④ X: 죽음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글에서 설명한 범죄소설의 기반과 반대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죽음을 불가피한 삶의 종결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파국적 사고**로 여기게 되었고, 이 태도가 폭력적 죽음에 대한 몰두로 이어졌다. 범죄소설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운명이나 비극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몸의 곳곳에 분포한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 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구조가 있다.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 신호는 통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통각 신경이 다른 감각 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길이가 30m인 흰긴수염고래는 꼬리에 통증이 생기면 최대 1분 후에 아픔을 느낀다.

통각 신경이 다른 감각 신경에 비해 가는 이유는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다. 피부에는 $1cm^2$당 약 200개의 통점이 빽빽이 분포하는데, 통각 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 없다. 이렇게 통점이 빽빽이 배치되어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반면 내장 기관에는 통점이 $1cm^2$당 4개에 불과해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① 통로는 여러 물질들이 세포의 안팎으로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②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질병의 발견이 늦을 수 있다.

③ 통각 신경은 다른 감각 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

④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통각 신경은 다른 감각 신경보다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가는 신경을 많이 배치하면 통점을 촘촘히 둘 수 있지만, 이것이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에서 통로는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 통로를 통해 **여러 물질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O: 셋째 문단은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어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통증은 질병을 알아차리는 단서가 되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질병의 발견이 늦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X: 둘째 문단은 통각 신경이 다른 감각 신경보다 매우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는 **'신호의 전달이 느리다'**로 고쳐야 한다. 셋째 문단에서 신경이 가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통점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이지,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④ O: 셋째 문단에서 피부에는 $1cm^2$당 약 200개의 통점이 빽빽하게 분포하여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내장 기관은 $1cm^2$당 통점이 4개에 불과해 아픈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 대비는 아픈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선지를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중모리] 그 때여 승상 부인은 심 소저를 이별허시고 애석함을 못 이기어, 글 지어 쓴 심 소저의 ㉠화상 족자를 침상으 걸어두고 때때로 증험허시더니, 일일은 족자 빛이 홀연히 검어지며 귀에 물이 흐르거늘, 승상 부인 기가 맥혀, "아이고, 이것 죽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끄나?" 이렇듯이 탄식헐 적, 이윽고 족자 빛이 완연히 새로우니, "뉘라서 건져내어 목숨이나 살었느냐? 그러허나 창해 먼먼 길의 소식이나 알겠느냐?"

— 작자 미상, 「심청가」에서 —

(나) [중중모리] 화공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중략)…
거북 연적 오징어로 먹 갈아, 천하 명산 승지간의 경개 보든 눈 그리고, 난초 지초 왼갖 향초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봉래방장 운무 중에 내 잘 맡던 코 그리고, 만화방창 화림 중 뛰어가던 발 그리고, 대한 엄동 설한풍 어한허든 털 그리고, 신농씨 상백초 이슬 떨던 꼬리라. 두 눈은 도리도리, 두 귀는 쫑긋, 허리 늘씬허고, 꽁지 묘똑허여. …(중략)… "아나, 엿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 작자 미상, 「수궁가」에서 —

① ㉠은 분노의 정서를 유발하는 반면, ㉡은 유쾌한 정서를 유발한다.
② ㉠은 대상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며, ㉡은 대상의 외양을 드러낸다.
③ ㉠과 ㉡은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일상적인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④ ㉠과 ㉡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인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은 족자의 빛이 변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는 현상으로 **심청이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 ㉡은 눈·귀·허리·꼬리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토끼의 외양**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승상 부인은 화상의 빛이 검어지고 귀에서 물이 흐르자 심청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탄식한다. ㉠이 유발하는 정서는 분노가 아니라 심청을 잃었다는 **슬픔과 걱정**이다. ㉡에서는 '두 눈은 도리도리, 두 귀는 쫑긋'과 같은 생동감 있고 익살스러운 묘사가 유쾌한 느낌을 준다.

② O: ㉠의 빛이 검어지고 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심청이 물에 빠져 위기에 처했음을 암시한다. 빛이 다시 새로워지자 승상 부인은 누군가 심청을 건져 목숨을 살렸으리라 짐작한다. 이처럼 화상의 변화는 **그려진 인물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반면 ㉡은 눈·입·귀·코·발·털·꼬리를 차례로 그리고, '허리 늘씬허고, 꽁지 묘똑허여'처럼 토끼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③ X: ㉠에서 멀리 있는 심청의 상황에 따라 족자의 빛이 변하고 그림 속 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환상적 현상**이다. 따라서 두 화상이 모두 현실 공간에서 일상적인 사건을 전개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제시된 대목은 화공이 토끼의 신체 각 부분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외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

④ X: ㉠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인용하지 않는다**. 심청의 화상에 나타난 변화와 이를 본 승상 부인의 반응을 서술할 뿐이다. ㉡을 그리는 대목에는 '신농씨 상백초'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를 근거로 두 화상 모두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인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도교와 거의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의 발자국이 줄을 지어 얼음 위를 거멓게 색칠하였다.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짚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이 감촉하였을, 너무나 차디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방을 둘러멘 보통학교 생도가 얼음 위를 지났다. 팔짱 낀 사나이가 동저고리 바람으로 뒤를 따랐다. 빵장수가 통을 둘러메고 또 뒤를 이었다. 조바위 쓴 아낙네, 감투 쓴 노인…… 그들의 수효는 분명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보다 많았다.
강바람은 거의 끊임없이 불어왔다. 그 사나운 바람은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움츠리게 하였다. 목을 한껏 움츠리고 강 위를 지나는 그들의 모양은 이곳 풍경을 좀 더 삭막하게 하여 놓았다.
나는 그것에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그리고 저 모르게 악연※하였다……
— 박태원, 「피로」 —

※ 악연하다: 몹시 놀라 정신이 아찔하다.

①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공감하고 있다.
② 대도시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비정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③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생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슬퍼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나'는 인도교를 두고 얼음 위를 걷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도, 그들이 느낄 추위를 상상하며 **몸서리칠 만큼 공감**한다. 나아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발견하며 자신과 연결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인도교가 있는데도 왜 얼음 위를 걷는지, 길을 줄여야 할 만큼 무슨 큰일이 있는지 묻는 데서 사람들의 행동을 낯설게 여기는 이질감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의 발바닥에 닿았을 차디찬 얼음을 상상하며 몸서리치는 모습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나타난다.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보는 것은 그들과 자신을 연결하여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② X: 제시문에는 타인이 '나'에게 비정하게 행동하거나, 그 때문에 '나'가 좌절하는 장면이 없다. 사람들의 목을 움츠리게 하는 것은 사나운 강바람이다. '나'는 **추위를 견디며 얼음 위를 걷는 사람들의 처지**를 상상하고 그 모습에 자신의 삶을 겹쳐 보고 있다.

③ X: '나'가 의문을 품고 바라보는 대상은 인도교 위가 아니라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이다. 또한 왜 얼음 위를 걷는지 묻기는 하지만, 그들을 어리석다고 단정하여 비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느낄 추위를 상상하며 몸서리치는 데서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X: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앞날을 떠올리는 표현이다. 이 구절만으로 생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악연하다'는 주석에 제시된 대로 **몹시 놀라 정신이 아찔하다**는 뜻이므로, 결말에서 직접 드러나는 반응은 슬픔보다 놀라움이다.

NoteBase

문 17. (가)~(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가)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하기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나) 전자는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만으로 축소해 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 진로 탐색 등 노동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삭제돼 버린다.
(라) 후자의 시각은 청소년 노동을 학생의 본분을 저버린 그릇된 행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돌려 버린다.
두 시각 모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청소년을 노동에서 빨리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나)－(가)－(다)－(라)
② (나)－(가)－(라)－(다)
③ (나)－(다)－(라)－(가)
④ (나)－(라)－(다)－(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다)의 '그러다 보니'는 (나)에서 노동의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로 축소한 결과**를 이어 준다. (가)의 '이런 시각'은 (라)에서 청소년 노동을 **그릇된 행위로 보는 시각**을 가리킨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다) → (라) → (가)

(나): 첫머리에 제시된 두 시각 가운데 '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이다. (나)는 이 시각이 청소년의 노동 이유를 생계비 마련으로만 한정한다는 문제를 설명하므로 첫머리 다음에 온다.

(다): '그러다 보니'는 앞 내용의 결과를 이끈다. 노동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로 축소하면 시간 활용, 독립적인 생활,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노동 동기가 지워진다**. 이는 (나)의 문제점을 구체화한 내용이므로 (나) 뒤에 이어진다.

(라): '후자의 시각'은 첫머리의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을 가리킨다. 전자에 관한 설명을 마친 뒤 후자의 문제점으로 넘어간다. 이 시각은 청소년 노동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여, 문제의 원인을 **노동 현장의 구조가 아니라 노동 자체**에 돌린다.

(가): '이런 시각'은 (라)의 시각을 받는다. (라)의 '그릇된 행위'가 (가)의 '비행만을 강조'와 의미상 연결되며, 그 결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긴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후 마지막 문장에서 두 시각 모두 청소년을 노동에서 구원하려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제시한다.

NoteBase

문 18. ㉠~㉤의 한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외래어의 사용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물론 ㉠ 공문서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 ㉡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말들이 ㉢ 일상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 성찰이 필요하다.

① ㉠: 共文書

② ㉡: 公間

③ ㉢: 日想

④ ㉣: 省察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성찰'은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로, **省察**로 쓴다. 지문의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은 자신의 국어 사용을 되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공문서'는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로, **公文書**로 쓴다. '공적인 일'을 뜻하는 公(공평할 공)을 써야 하며, 共(한가지 공)은 '함께'라는 뜻이므로 알맞지 않다.

② X: ㉡의 '공간'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하며, **空間**으로 쓴다. 지문의 '가상 공간'에서도 空(빌 공)을 써야 한다. 公(공평할 공)은 '공적인 일'과 관련된 글자이므로 알맞지 않다.

③ X: ㉢의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생활을 뜻하므로 **日常**으로 쓴다. 日(날 일)에 常(항상 상)을 결합한 말이며, '생각'을 뜻하는 想(생각 상)을 쓰지 않는다.

④ O: ㉣의 '성찰'은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로, **省(살필 성)과 察(살필 찰)**을 써서 省察로 표기한다.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지문의 문맥에도 맞는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 즉 보상과 처벌이다. 우리가 의욕을 갖는 것은 당근 때문이다.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할 것이다.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 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한다.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카드가 당근이다. 어떤 직장인에게는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이 당근이다.

① 예시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④ 비유를 사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아이의 사랑이 담긴 카드와 직장인의 주말 여행을 **긍정적 보상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보상에서 의욕을 얻는다는 설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시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이 글은 삶에 의욕을 주는 긍정적 보상물을 설명한 뒤, **부모가 받는 아이의 카드와 직장인의 주말 여행**을 예로 든다. 독자는 이 사례를 통해 사람마다 일상을 견디게 하는 보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② X: 글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는 아이가 카드에 쓴 말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보상의 사례**를 구체화한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신뢰성을 높이는 인용이 아니다.

③ X: 글쓴이가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하는 대목은 없다. 보상과 처벌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상이 고단한 일상을 감수하게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X: 보상과 처벌을 '당근과 채찍'에 빗댄 비유는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보상과 처벌의 역할**을 친숙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특히 긍정적 보상이 삶에 의욕을 준다는 점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20.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 과장: 오늘은 우리 시에서 후원하는 '벚꽃 축제'의 홍보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축제에 찾아오게 하는 홍보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김 주무관: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니까 우리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입한 SNS를 선별해서 홍보하면 입소문이 날 테니까요.
이 주무관: 파급력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보다는 대중이 널리 이용하는 라디오 광고로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듣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윤 주무관: 어떤 홍보든 간에 가장 쉬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기관의 누리집에 홍보 자료를 올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박 과장: 네, 윤 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기관의 누리집에 홍보 자료를 올리면 시간도 적게 들고 홍보 효과도 크겠네요.

① 축제의 홍보 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김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이 SNS를 즐겨 이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③ 이 주무관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④ 박 과장은 김 주무관, 이 주무관, 윤 주무관의 제안을 비교하여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박 과장은 세 제안을 절충한 것이 아니라 **윤 주무관의 누리집 홍보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절충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 대화에서는 SNS·라디오 홍보안을 누리집 홍보안과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박 과장은 '벚꽃 축제'에 타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홍보 방법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구성원들이 SNS, 라디오 광고, 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므로, **축제 홍보 방안을 토의**하는 과정이다.

② O: 김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SNS 홍보를 제안한다. 주민들이 많이 가입한 SNS를 선별하면 입소문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여 제안의 효과를 설명한다.

③ O: 이 주무관은 라디오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듣는다는 점을 들어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제시된 SNS 홍보와 비교하여 **라디오 광고의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④ X: 박 과장은 '윤 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며 기관 누리집에 홍보 자료를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 시간도 적게 들고 홍보 효과도 클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을 뿐, 세 제안을 비교하여 조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는 **'윤 주무관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절충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다.

NoteBase